

○ 서울시의 전 세계 도시 경쟁력 순위가 최근 5년간 크게 하락

- 미국 컨설팅업체 AT Kearney의 '2020 Global Cities Report'에 따르면 서울의 글로벌 도시지수(GCI)가 2015년 11위에서 2020년 17위로 6계단 하락

※ GCI(Global Cities Index) : 경제활동, 인적자본 등 현재 도시 경쟁력 수준 평가

- 반면 동기간 도쿄는 4위를 유지하고 베이징은 9위에서 5위로 4계단 상승

- 글로벌 도시전망지수(GCO)는 2015년 12위에서 2020년 42위로 30계단 추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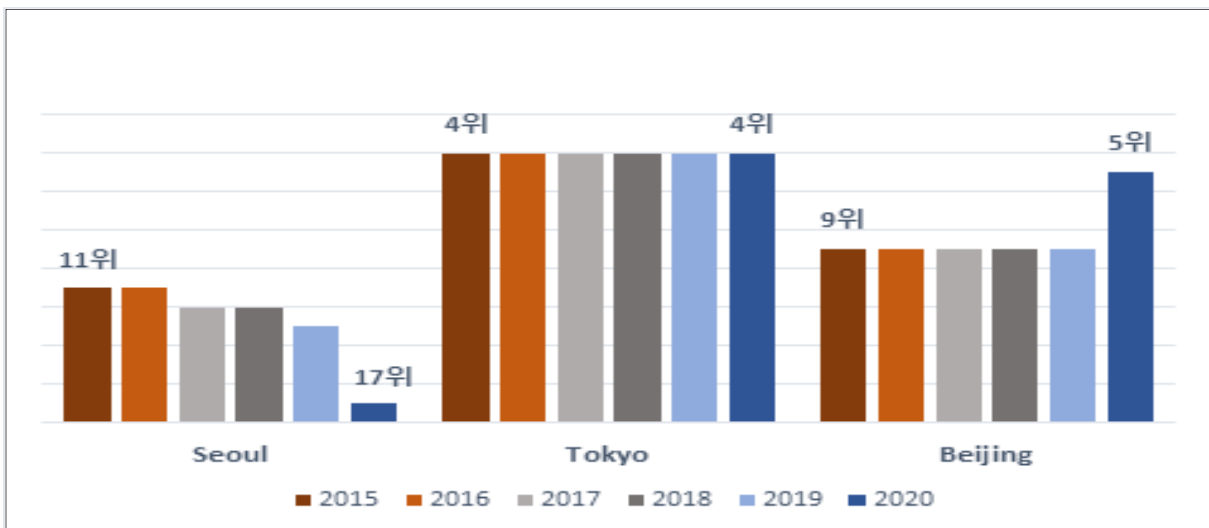
※ GCO(Global Cities Outlook) 친기업환경, 행정 역량, 민간투자 유치 등 미래 성장 잠재력 평가

- 도쿄가 15계단(19위 → 4위), 베이징이 25계단(57위 → 32위) 뛰어오른 것과 대비

○ 이 지수는 그간 서울이 도시경쟁력을 가름하는 '기업 친화성'을 얼마나 도외시켰는지를 보여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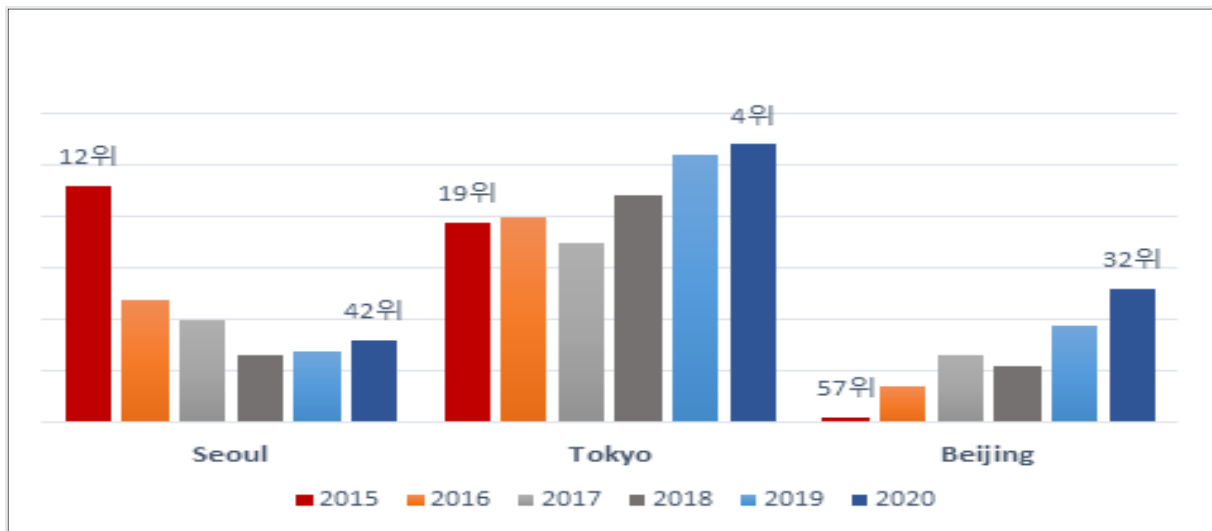
- 2011년 박원순 전 시장 취임 이후 재개발·재건축 중단, '마을 공동체' 수준의 도시재생 사업 등 기업친화성과는 전혀 정반대의 길을 택한 당연한 귀결

서울 글로벌 도시지수(GCI), 2015년 11위→ 2020년 17위, 6계단 하락



자료: AT Kearney, " 2020 Global Cities Report"

서울 글로벌 도시전망지수(GCI), 2015년 12위 → 2020년 42위, 30계단 추락



자료: AT Kearney, " 2020 Global Cities Report"